

고등학생들의 성문화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A Study of Sexual Attitudes and Opinions for 10th Grade Students in Co-Ed

Moon, In - Ok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understand sexuality in 10th grade co-ed students in Seoul, Korea in order to construct practical curriculum for sex education for youth.

Method : One-hour class per week was done to the 3 classes among 6 classes for Spring semester in 1999: small group discussion(for 3 classes) & questionnaires(6 classes) were taken.

Results : Despite the increased number of sex education programs, peers apparently remain the major source of information and the counselor of their sexual problems.

The rate of correct answer of the sex knowledge is still low, especially on biological aspects of opposite sex. Western culture and women's movements have changed our society. In turn, sexual stereotypes and roles have been changing.

Small group discussions were taken after the classes of pregnancy, abortion and unmarried parents. Their opinions on maintaining virginity were collected.

The condition of choosing spouse and boy/girl friend is quite different in many aspects.

I. 서 론

산업화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성개방 풍조는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성문화를 허용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왔으며, 대중매체의 발달로 성정보의 문란과 성상품화로 그 동안 고수하여온 우리사회

의 성가치관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성상품화와 왜곡된 성정보의 범람으로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충동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가치관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면서, 10대 임신(미혼모), 성폭력, 성병 등 10대의 성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다.

성역할이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 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회적 역할 내지는 행위로서 각각의 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관한 사회적, 문화적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은 남성다움, 여성은 여성다움을 건강하다고 보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사회적 통념)은 대체로 남녀간의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에게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다.

김미숙(1997)의 연구에서 Macoby & Jacklin의 전통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성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결론은 남녀간에는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적으며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이는 학습을 통해 배우는 사회화의 결과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성건강은 성격, 의사소통, 사랑을 풍부히 하는 방식에서 성적존재로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으로서 모든 사람은 성정보를 받고 생식뿐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성적관계를 수용할 권리가 있다(WHO, 1975).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성교육은 올바른 선택, 성의식, 올바른 성적 행동양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질적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이근후, 1996). 따라서 성교육내용을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인기법, 성행동, 성건강, 사회와 문화 등 포괄적 측면으로 다루어야 한다(양순옥,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성 역할, 순결, 이성친구와 배우자의 조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등 청소년들의 성문화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 교육내용으로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이해하여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이대부속고등학교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 6학급 학생 288명을 대상하였다.

이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남녀공학이 므로(서로 이성의 성을 알아야 성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지역에 따라 특정한 계층을 반영하는 지정학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종합학군으로 지역(서울시 및 경기도) 및 계층에서 좀 더 다양하므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 3월에서 7월초까지 6학급 중 3학급은 각 학급마다 1주일에 1회 1시간씩 본 연구자가 직접 성교육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 3학급의 자료는 3월과 7월초 2차례에 걸쳐 Pre-test와 Post-test를 통하여 얻은 자료이다.

2. 연구도구

1) 설문지-일반적인 특성(9문항), 성관련 특성(성교육경험), 성정보 출처, 성고민 여부 및 성고민 해결방법, 성태도(5문항), 결혼하는 이유, 배우자의 조건순위 및 이성친구의 조건순위로 구성되었다.

2) 성교육 수업종

- (1) 토론판장에서 각 조별로 나온 자료(순결 및 낙태)에 대한 견해
- (2) 조별 토론에서 얻은 성 역할(남성적, 여성적특성인 부드럽다~믿음직스럽다의 24항 목) 자료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인 특성, 성고민 유형, 성관련 특성을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성 역할 분석은 백분율과 χ^2 -test를 실시하였다.
- 3) 결혼하는 이유(7가지)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ordinal data이므로 Mann-Whitney U test와 2-sample Kolmogorov-Smirnov test를 하였다.
- 4) 이성친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순위

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순위에서 는 각각 성별로 순위 평균, 중위값 및 우선순위 를 구하였다.

5) 남녀 각각 조건항목별로 이성친구와 배우자의 순위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 test를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녀 공학교육학과 1학년생 6학급으로 총 284명(남자 127명, 여자 157명)으로 이루어졌다.

1) 성교육 경험

연구대상자의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은 27.8%로 나타나 우윤미(1997)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43.7%보다는 매우 낮았다. 가정 성교육의 내용으로서는 월경이 20.8%로 가장 많고 이성교제(17.3%), 사춘기(11.6%), 임신(8.5%)순으로 나왔으며 나머지는 별로 많이 다루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률은 95.1%로 울산시 10개 남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박성정(1997)의 남자중학생(84.6%), 여자중학생(92.3%), 남녀 공학 중학생(80.5%), 남자고등학생(72.5%), 여자 고등학생(89.9%)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1997년 이후 계속 10대 임신등 매스콤을 통해 나타나는 심각한 청소년 들의 성문제가 사회화됨으로써 성교육의 필요성

을 인지한 교육부가 성교육을 권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성정보 출처

성정보 출처는 친구가 62.3%로 가장 많았고 영화, 라디오, TV, 비디오(59.9%), 책, 만화, 신문, 잡지(54.2%), 선생님(47.9%), 컴퓨터 통신(19.4%), 부모(14.4%), 형제, 자매(5.6%), 전화(2.5%)순이었다(표 1). 김의영(1996)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친구(40.8%), 대중매체(26.5%), 선생님(19.2%), 책·잡지(13.3%), 부모(5.1%)순으로 거의 비슷한 순서였으나 성정보 습득율이 본 연구에서보다 매우 낮았다.

많은 연구결과 계와 문(1999), 박성정(1996), 김의영(1996) 등과 비교해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최근에 올수록 선생님보다는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한 왜곡된 성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성고민

연구대상자 중 39.1%가 성고민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이는 박성정(1996)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 1학년(남,녀)중 40.1%가 성고민이 있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성고민 해결방법으로는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TV, 라디오, PC 등(16.3%),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다(16.3%), 부모님과 상의(8%) 등의 순서였으며 선생님과

표 1. 성정보 출처

출처 습득 여부	부모	선생님	친구	형제 자매	책, 만화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TV, 비디오	컴퓨터 통신	전화
습득 하였다	41 (14.4)	136 (47.9)	177 (62.3)	16 (5.6)	154 (54.2)	170 (59.9)	55 (19.4)	7 (2.5)
습득 안했다	243 (85.6)	148 (52.1)	107 (37.7)	268 (94.4)	130 (45.8)	114 (40.1)	229 (80.6)	277 (97.5)
계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상의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용구(1997)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의 결과(36.9%)와 비슷하였으나 박성정(1996)의 1학년생의 연구 결과인 54.7% 보다는 훨씬 낮게 나와 차이가 있었다.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기관과 상의하는 결과도 유사하게 거의 없어 적절치 못한 해결방법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성교육이나 성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성고민 해결에 올바른 지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알고 싶은 성지식

연구 대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지식은 이성교제(57.8%)가 가장 많았고, 에이즈·성병(46.5%), 성폭력(46.5%), 피임(46.1%), 인공유산(43.3%), 임신(42.6%), 성교(39.1) 등의 순이었

표 2. 성고민 유무, 내용, 해결방법

특 성	구 분	인원수 (명)	비율 (%)
성고민	있다	111	(39.1)
유무	없다	173	(60.9)
	계	284	(100.0)
성고민	부모님	8	(10.0)
	선생님	0	(0.0)
	친구	31	(38.8)
해결방법	아는 언니	3	(3.8)
	상담기관	0	(0.0)
	책·잡지	10	(12.5)
성고민	영화·TV·라디오·PC	13	(16.3)
	해결방법이 없다	13	(16.3)
	계	80	(100.0)
성고민	이성교제	112	(39.4)
	생리현상	35	(12.3)
	성행위	29	(10.2)
	임신·출산	12	(6.3)
	자위행위	16	(5.6)
	신체구조	16	(5.6)
	성병·피임	18	(6.4)
	성충동	37	(13.0)
	성폭력·강간	16	(5.6)
내용	기타	-	-

고, 연구 대상자들의 흥미를 가장 끌지 못하는 내용은 생식기의 구조와 2차 성징으로,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고 한 비율은 남녀 각각 74.4%, 85.2%로 나타났다(표 2). 이는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성고민 내용의 순위와 유사하여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알고 싶은 성지식은 이성교제, 성폭력, 성병 및 에이즈, 성교, 임신 및 피임 등의 순위였고 여학생에서는 이성교제, 피임, 인공유산, 에이즈, 성폭력, 성병, 성교 등의 순위였으나 같은 내용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궁금한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알고 싶은 성지식에서 남녀 학생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지식 내용은 피임과 인공유산으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궁금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임신과 낙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교육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신체구조에 대한 내용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5) 성지식의 정확도

성교육 실시전 성지식 문항에 대한 전체 연구 대상의 남녀별 정답률을 살펴보면(표 4), 정답률이 50%가 안되는 문항은 총 30개 중 남학생은 15문항, 여학생은 16문항이었고 남녀 공히 30% 이하의 낮은 정답률은 8개(문항 6, 8, 15, 20, 23, 24, 25, 30)문항이었으며 70%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5개로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여 학생들 스스로는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곡된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률에 있어 남녀별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 문항은 13개 문항(문항 1, 3, 5, 6, 8, 9, 10, 12, 15, 16, 19, 21, 25)이었고 특히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생식기 구조 및 2차 성징, 임신 및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현숙(1993)의 중학생들의 성지식이 50% 미만의 낮은 정답률과 최순희(1990)의 자위행위, 사정, 피임, 낙태 및 사춘기 정서 등에 대한 50% 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김과 남(1992)

표 3. 성별에 따른 알고 싶은 성지식

특성	구분	남학생	여학생	χ^2
		명(%)	명(%)	
생식기의 구조와 2차 성징	궁금하다	31(25.6)	22(14.8)	4.99*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90(74.4)	127(85.2)	
사춘기 정서	궁금하다	37(30.6)	41(27.2)	0.39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84(69.4)	110(72.8)	
남녀의 생리 (월경과 사정포함)	궁금하다	62(25.6)	60(19.9)	2.56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180(74.4)	242(80.1)	
자위행위	궁금하다	41(33.6)	48(30.0)	0.42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81(66.4)	112(70.0)	
성병	궁금하다	56(46.3)	70(46.7)	0.00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65(53.7)	80(53.3)	
성교	궁금하다	48(39.3)	63(42.0)	0.20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74(60.7)	87(58.0)	
임신	궁금하다	46(38.3)	75(49.7)	3.48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74(61.7)	76(50.3)	
피임	궁금하다	45(37.2)	86(57.0)	10.51***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76(62.8)	65(43.0)	
인공유산(낙태)	궁금하다	39(32.5)	84(55.6)	18.64***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81(67.5)	67(44.4)	
성폭력	궁금하다	57(46.3)	75(50.3)	0.43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66(53.7)	74(49.7)	
이성교제	궁금하다	75(61.0)	89(59.3)	0.08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48(39.0)	61(40.7)	
AIDS	궁금하다	55(45.1)	83(54.6)	2.46
	관심이 없거나 궁금하지 않다.	67(54.9)	69(45.4)	

의 여학생은 몽정에 대해, 남학생은 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 한다.

2. 성역할

일반적으로 여성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남성은 거칠며 논리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져왔다. 표 5는 남성적, 여성적 또는 양성적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24개의 성적 특성들로서 연구대상자중 한 학급 학생들의 반응이다. 24개의 각 성적 특성에 대해서 성별이 남성적·여성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χ^2 검정한

결과 '털털하다', '꼼꼼하다', '강하다', '씩씩하다', '집념이 강하다', '싹싹하다', '상냥하다', '자신감 있다', '믿음직스럽다' 9개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별이 성고정 관념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씩씩하다', '상냥하다'를 제외한 7개 특성은 남성적 특성으로 알려져 왔는데 남녀 각각 자기네 특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의 모든 사회활동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있는것과 또한 능력이 우수한 여고생들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 성역할 인식을 갖게 된다. '민감하다', 와 '깔끔하다'에서

표 4. 성지식 각 문항에 대한 성별 정답률

문 항	남학생	여학생	z
1. 성적경험이 많다는 것은 '성'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0.55	0.81	4.69***
2. 남녀의 심리적 차이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학습된 것이 많다.	0.65	0.67	0.84
3. 인공 임신중절은 최소한 임신 7개월까지는 괜찮다.	0.35	0.60	4.23***
4. 자위행위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결혼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0.49	0.45	0.60
5. 남성은 정자가 배출되는 기관과 소변이 배출되는 기관이 같다	0.64	0.41	3.73***
6. 성욕구를 가지게 하는 성충동은 남녀가 다르다.	0.19	0.05	3.66***
7. 성충동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0.69	0.71	0.52
8. 정자는 자궁내에 1일 정도 살며, 난자는 2~3일 정도 살 수 있다.	0.14	0.27	2.70**
9. 여성의 월경과 남성의 봉정현상 등은 성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0.57	0.68	1.99*
10. 남성은 1개의 고환을 가지고 있다.	0.83	0.43	6.91***
11. 성호기심이나 성충동은 성호르몬의 분비와 관련이 있다.	0.62	0.61	0.17
12. 2차 성징은 여자가 남자보다 1~2년 빠르다.	0.61	0.72	2.02*
13. 봉정은 허약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0.73	0.73	0.01
14. 사춘기가 되면 여성의 난소에서는 난자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0.65	0.69	0.73
15. 동성친구와 이성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똑 같아야 한다.	0.20	0.31	2.20*
16. 임신초기(2~3개월)에 약을 잘못 복용하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0.83	0.92	2.50**
17. 아기는 남녀의 성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0.81	0.89	1.92
18. 분만시 아기는 엄마의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온다.	0.43	0.45	0.46
19.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을 예방한다.	0.97	0.65	2.24*
20. 성교 직후 질세척이나 토키됨을 함으로써 정자가 질속으로 운동해 들어가는 것을 막아 피임을 할 수 있다.	0.16	0.17	0.17
21. 인공유산(낙태)은 자궁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	0.27	0.41	2.47*
22. 성병의 증세가 저절로 사라지면 완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0.35	0.43	1.54
23.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빨리 몸을 씻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0.21	0.31	1.88
24. 매독은 키스나 수혈로 전염될 수 있는 성병이다.	0.20	0.15	0.33
25. 성병은 변기,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	0.20	0.20	0.02
26. 성폭력이라 함은 신체적 괴롭힘만을 의미한다.	0.69	0.82	2.54*
27. AIDS는 화장실 변기나 모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0.34	0.27	1.69
28. 여성이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0.50	0.52	0.44
29.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걸리지 않는다.	0.48	0.45	0.47
30. 월경 주기법은 다음 월경 예정일인 12~19일 사이에 성행위를 피하는 피임법이다.	0.22	0.31	1.61

표 5. 성역할 특성 문항에 대한 남녀 응답자수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χ^2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부드럽다	12	13	25	11	17	28	0.52**
털털하다	17	11	28	6	20	26	7.81
꼼꼼하다	9	10	19	14	12	26	0.18
야심적이다	19	11	30	4	14	18	7.62**
알뜰하다	14	8	22	9	12	21	1.68
강하다	19	15	34	4	15	19	6.02*
차분하다	16	10	26	7	13	20	3.18
친절하다	16	21	37	7	8	15	0.05
민감하다	15	11	26	8	14	22	2.17
근엄하다	21	14	35	2	6	8	3.21
씩씩하다	20	16	36	3	13	16	6.08*
의리가 있다	16	16	32	7	7	14	0.00
얌전하다	4	2	6	19	14	33	0.17
깔끔하다	12	17	29	11	9	20	0.88
박력있다	20	15	35	3	6	9	1.63
집념이 강하다	23	10	33	0	16	16	21.02***
싹싹하다	11	5	16	12	21	33	4.54*
독립적이다	14	17	31	9	13	22	0.09
상냥하다	4	15	19	19	12	31	7.68**
과묵하다	16	12	28	7	12	19	1.87
섬세하다	14	9	23	9	16	25	2.97
자신감있다	22	16	38	1	14	15	11.49***
온화하다	10	5	15	13	22	35	3.68
밀음직스럽다	23	17	40	0	11	11	11.52***

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특성으로 생각되어져 왔었는데 의외로 남성적 특성으로, 섬세하다는 남자와 여자의 양쪽에서 응답한 양성적 특성을 보였다. 요즈음 같이 다변화 되어가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양성적 특성인 양성성을 요구하고 있다.

성역할 인식은 매일의 일상적 생활속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데 심미옥(1991)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인 경험을하게 되며 학교는 여고생의 성역할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한 남녀 공학의 학생들이 여학교의 학생보다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더 반대한다는 결과와 일맥 상통하였다.

3. 이성친구와 결혼시 배우자의 조건

1) 결혼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6과 같다. 동반자가 1순위, 심리적 욕구, 자녀 등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 안정, 인격의 성숙, 성인으로의 인정받음, 생리적 욕구 충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결혼하는 이유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순위

결혼하는 이유	평균순위± 표준편차	순위	Q1	중위값	Q3
일생동안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얻기 위해	1.82±1.85	1	1	1	2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심리적인 욕구 충족)	3.02±1.81	2	2	2	4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생리적인 욕구충족)	5.74±1.87	7	5	7	7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사회적인 역할 수행)	4.46±1.72	4	3	4	5
자녀를 냉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3.86±1.94	3	2	3	5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	4.99±1.76	6	4	5	6
인격의 성숙을 위해	4.84±1.97	5	3	5	6
기타	7.55±0.50	8	1	2	2

표 7. 이성친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순위

조건항목	남 자			여 자		
	평균	중위값	순위	평균	중위값	순위
훌륭한 외모	6.09	3	3	4.22	4	3
건강	7.52	5.5	5	6.32	7	6
유머감각	8.34	6	6	4.76	4	4
동정심	9.88	8	7	9.64	10	12
학벌이나 성적	10.97	10	11	8.18	9	10
풍부한 지식과 상식	10.21	8.5	9	7.53	8	8
신앙	11.48	11	12	9.54	11	11
부유함	0.77	10	10	6.35	6	7
좋은 성품	5.84	3	2	3.93	4	2
친절하고 다정함	5.05	2	1	3.09	2	1
타인에 대한 배려	6.80	4	4	5.37	5	5
순결	9.88	8	7	8.09	9	9

2) 이성친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순위

이성친구가 갖추어야 할 12개의 조건항목을 성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보면 남녀 모두 1순위에 '친절하고 다정한', 2순위로 '좋은 성품', 3순위 '훌륭한 외모', 우선으로 꼽혔다.

남녀 순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남자는 '동정심'으로 7순위에 여자는 12위로 가장 낮은 조건으로 선택하였고 '부유함'에서 남자는 10위였으나 여자는 7위로서 물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3)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순위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항목과 일치한 '친절하고 다정함', '좋은 성품' 이었으나 3위의 '훌륭한 외모'에서 남녀 모두 5, 6위의 '건강'을 3순위로 선택하였고 '순결'에서는 여성에서는 동일한 순위이나 남성에서는 7위에서 6위로 더 민감하였고 '부유함'에서는 남성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여성에서는 4위로 남녀별 많은 차이를 보여 매우 현실적으로 물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인덕(1973)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중 미혼자를 대

표 8.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순위

조건항목	남자 (n = 127)			여자 (n = 157)		
	평균	중위값	순위	평균	중위값	순위
훌륭한 외모	4.52	4	4	6.28	6	6
건강	4.49	4	3	4.47	4	3
유머감각	7.54	8	7	6.99	7	10
동정심	8.32	9	9	10.16	11	12
학벌이나 성적	8.56	9	10	6.18	6	5
풍부한 지식과 상식	7.84	8	8	6.81	7	8
신앙	9.26	11	12	9.13	11	11
부유함	8.56	9.5	10	5.67	5	4
좋은 성품	3.60	3	2	3.89	3	2
친절하고 다정함	3.27	2	1	3.86	4	1
타인에 대한 배려	4.86	4	5	6.56	7	7
순결	6.35	6	6	6.93	7	9

상으로 한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서는 조건 항목이 좀 상이하였지만 남녀 모두 ‘애정’, ‘건강’의 순위였으며 남자는 그 다음으로 ‘훌륭한 외모’를 여자는 배우자로 ‘재능’을 선택하였다. 남자에서는 ‘혈통’을 여자에서는 ‘남자의 직업’을 우선시 하였고, 재산은 거의 끝으로 선택하여 26년 후인 본 연구와 아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4) 남학생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항목별 순위차이

남학생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항목별 순위차이를 비모수 검정한 결과 표 9의 12개 조건 항목 중 5개의 조건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혼전에는 ‘훌륭한 외모’, ‘유머감각’ 등을 선호하였으나 결혼시에는 ‘건강’, ‘동정심’, ‘순결’을 우선시 하여 좀더 현실적이었다.

5) 여학생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항목별 순위차이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항목별 순위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한 결과 12개의 조건항목 중 10개

의 조건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이성친구와 배우자의 선택은 아주 서로 상이함을 나타내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조건항목인 ‘신앙’과 ‘좋은 성품’이었다.

4. 토론 광장

순결, 낙태, 미혼모 등에 관한 수업 후 조별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면 다음과 같다.

1) 순결이란?

- ① 함부로 변하지 않는 것.
- ② 성관계나 성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 ③ 자신이 책임질 수 있고 자신을 책임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지키는 것.
- ④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
- ⑥ 육체적 순결 이전에 올바른 도덕관과 성윤리가 수반된 정신적 순결이 우선의 문제.
- ⑦ 자신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있고, 남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 것.

표 9.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항목별 순위차이

조건항목	배우자순위 - 이성친구순위	평균순위	순위합	Z	P값
훌륭한 외모	-순위	28개	41.46	1161	-2.516
	+순위	54개	41.52	2242	
	○	46개			
건강	-순위	60개	40.75	2445	-3.975
	+순위	20개	39.75	795	
	○	48개			
유머감각	-순위	20개	33.08	661.5	-4.730
	+순위	61개	43.60	2659.5	
	○	47개			
동정심	-순위	26개	44.4	1154.5	-2.099
	+순위	53개	37.84	2005.5	
	○	49개			
학벌이나 성적	-순위	44개	39.73	1748	-1.717
	+순위	31개	35.55	1102	
	○	53개			
풍부한 지식과 상식	-순위	46개	46.88	2156.5	-1.240
	+순위	40개	39.61	1584.5	
	○	42개			
신앙	-순위	36개	35.75	1287	-1.665
	+순위	28개	28.32	793	
	○	64개			
부유함	-순위	45개	40.31	1814	-0.937
	+순위	35개	40.74	1426	
	○	48개			
좋은 성품	-순위	40개	36.70	1468	-0.654
	+순위	33개	37.36	1233	
	○	55개			
친절하고 다정함	-순위	25개	35.76	894	-1.718
	+순위	43개	33.77	1452	
	○	60개			
타인에 대한 배려	-순위	37개	37.46	1386	-0.778
	+순위	41개	41.34	1695	
	○	50개			
순결	-순위	61개	49.06	2992.5	-4.320
	+순위	27개	34.20	923.5	
	○	40개			

표 10.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항목별 순위차이

조건항목	배우자순위-이성친구순위	평균순위	순위합	Z	P값
훌륭한 외모	-순위	21개	39.90	838	-7.923 0.000
	+순위	108개	69.88	7547	
	○	31개			
건강	-순위	96개	70.98	6814.5	-7.118 0.000
	+순위	29개	36.57	1060.5	
	○	35개			
유머감각	-순위	17개	30.18	513	-8.414 0.000
	+순위	107개	67.64	7237	
	○	36개			
동정심	-순위	30개	44.13	1324	-3.976 0.000
	+순위	68개	51.87	3527	
	○	62개			
학벌이나 성적	-순위	100개	72.00	7200.5	-6.637 0.000
	+순위	31개	46.63	1445.5	
	○	29개			
풍부한 지식과 상식	-순위	72개	60.19	4334	-2.804 0.005
	+순위	43개	54.33	2336	
	○	45개			
신앙	-순위	41개	43.15	1769	-1.599 0.110
	+순위	35개	33.06	1157	
	○	84개			
부유함	-순위	80개	69.00	5520	-3.159 0.002
	+순위	49개	58.47	2865	
	○	31개			
좋은 성품	-순위	53개	59.64	3161	-0.325 0.745
	+순위	57개	51.65	2944	
	○	50개			
친절하고 다정함	-순위	34개	54.96	1868.5	-3.903 0.000
	+순위	79개	57.88	4572.5	
	○	47개			
타인에 대한 배려	-순위	25개	54.60	1365	-5.535 0.000
	+순위	90개	58.94	5305	
	○	45개			
순결	-순위	76개	58.36	4435	-4.141 0.000
	+순위	34개	49.12	1670	
	○	50개			

- ⑧ 육체적인 접촉(행위)을 하지 않는 것.
- ⑨ 육체적으로 더럽혀 졌어도(성폭행 등) 정신적으로 깨끗하다면 순결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음.
- ⑩ 자위를 하지 않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

2) 순결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그 이유는?)
- 그렇다
 - 이유: ①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 ② 성관계를 갖게 되면 남자에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여자는 육체적으로 변한다.
 - 그렇지 않다
 - 이유: ① 남자도 당할 수 있다.
 - ② 여성만 순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남존여비 사상이 만들어낸 고정관념.
 - ③ 남자가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자 또한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④ 남녀를 떠나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 ⑤ 남녀 평등에 어긋남(성차별).
 - ⑥ 순결은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한다.

3) 순결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 ①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친다.
- ② 보다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 ③ 고정 관념.
- ④ AIDS 등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
- ⑤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일을 단순한 기분 때문에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커질 수 있기 때문.
- ⑥ 임신 할까봐.
- ⑦ 순결은 단지 성적 욕구를 위해서 만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
- ⑧ 결혼한 후 결리면 가정이 파탄.
- ⑨ 죄책감.
- ⑩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

이 있기 때문.

- ⑪ 배우자간의 신뢰성, 양심의 문제(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 때문).

4) 순결을 잃게 된다면 남녀 각각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남자) ① 성병(AIDS).
- ② 서로의 믿음이 깨진다. 가정 파괴.
 - ③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힘.
 - ④ 죄책감, 정자 빈약, 잘 안 선다.
 - ⑤ 재미에 젖어들게 됨(밝힘증).
 - ⑥ 성의 가치 저하(성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
 - ⑦ 여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
 - ⑧ 여자를 육체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
 - ⑨ 정신적인 피해(인간 기피증).
 - ⑩ 올바르지 못한 성 윤리를 가질 수 있다.
- 여자) ① 정신적 타격(여자의 순결을 중요 시하는 사회에서).
- ②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후유증, 낙태로 인한 불임 가능성.
 - ③ 미혼모(아이 양육 문제).
 - ④ 피해의식에 사로잡힘.
 - ⑤ 결혼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 ⑥ 남성 기피증, 우울증, 죄책감 => 폐인, 자살.

5) 2주전에 보았던 낙태 관련 비디오를 보고 난 소감을 얘기해 봅시다.

- ① 충격적, 생명의 소중함(보이지 않는다 하여 생명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
- ② 낙태가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되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③ 성관계를 함부로 가져선 안되겠다.
- ④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 ⑤ 순간의 잘못으로 낙태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 슬펐다.
- ⑥ 얘기가 불쌍해 보인다.
- ⑦ 징그럽다. 무섭다.

- ⑧ 위험한 수술이다.
 - ⑨ 살인 행위이니 임신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콘돔, 피임약을 사용하겠다).
 - ⑩ 순결을 지켜야겠다.
 - ⑪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니 이해함.
 - ⑫ 산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 ⑬ 임신과 낙태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 6) 만일 고등학생인 우리 주변의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낙태 요구(아기가 커서 받을 사생아로서의 정신적 상처, 경제적 문제,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안 좋음. 미혼모, 사생아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
 - ② 상담 기관 찾아가도록 권유.
 - ③ 괜찮은 산부인과 소개.
 - ④ 남자의 대책 방안을 보고서 결정.
 - ⑤ 출산 :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양 보충을 시켜 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하도록 도와줌, 친구를 멀시의 눈으로 보지 않음.
 - ⑥ 출산 후 입양시킨다
 - ⑦ 출산 후 부모님께 알려 기르게 한다. 그 후 나이가 적당히 되면 그 남자와 결혼시켜 잘 살게 한다.
 - ⑧ 책임질 수 있으면 출산하고, 질 수 없으면 지우라고 한다.
 - ⑨ 고아원에 보낸다.
 - ⑩ 어차피 한번쯤 낳을 것인데 조금 일찍 낳은 것 뿐이라 비난할 필요 없다고 본다(먹고 싶은 것 많이 사줌).
 - ⑪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도록 권유.
 - ⑫ 2~3개월 때에 낙태, 4~6개월이 된다면 좀 생각해 보겠다.

- ⑬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낙태 권유. 상담 권유(10대이기 때문에 아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우선 시).
- ⑭ 출산(부모님과 남자에게 얘기하도록, 남자에게 상의해 같이 살라고 한다).

7) 결혼 후 원하던 아기가 임신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기형아, 정신 박약 등)라는 초음파 진단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 현재 모자보건법 상에서는 이런 몇 가지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낙태 : ① 아이도 힘들 것 같고 집안 사람들도 힘들 것 같아서(비용부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지울 것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조치(사회적 인식, 시설...)도 없다.
- ② 내가 죽고 난 후 그 아이의 생계가 위협.
- ③ 사회 적응에 힘들기 때문(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감).
- 출산 : 하나의 생명임으로 자신이 삶을 이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도 충분히 세상에 적응해 살도록 키울 수 있다.

8) 위 질문 외에 이 주제에 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① 똑바로 살자. 성폭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 ②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갖자.
- ③ 무분별한 행위에 관한 비디오(포르노)를 보고 싶다.
- ④ 야한 비디오를 보지 않겠다.
- ⑤ 나쁜 생각을 갖지 말자.
- ⑥ 성병(AIDS). 임신했을 때의 약물 복용. 피임 방법.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녀공학 6개 학급 284명을 대상으로 1996년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험군 한 학급당 매주 한 시간씩 연구자가 직

점 성교육 수업을 실시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성고민, 알고 싶은 성지식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성역할, 순결, 이성친구와 배우자의 조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등 청소년들의 성문화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 교육내용으로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이해하여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등교과과정에 성교육이 보건교육의 한 주제로써 교과과정이 편성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1.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은 27.8%였으며,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률은 95.1%로 높게 나왔다. 성정보 출처로서는 친구가 62.3%가 가장 많았으며 영상매체(59.9%), 책·잡지류(54.2%), 선생님(47.9%), 컴퓨터 통신(19.4%), 부모(14.4%), 형제·자매(5.6%), 전화(2.5%)순이었다.

2. 연구대상자 중 39.1%가 성고민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 고민 해결방법으로는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런 해결 방법책을 구하진 않은 경우(16.3%), 부모님과 상의(8%), 선생님과 상의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3. 알고 싶어하는 성지식 내용은 이성교제(57.8%)로 가장 많았고, 에이즈·성병(46.5%), 피임, 인공유산, 임신, 성교 등의 순서로 성고민 내용과 유사하여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궁금한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성교육실시 전 성지식 정확도는 정답률에 있어 50%가 안되는 문항이 30문항중 남학생 15문항, 여학생 16문항으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고 남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13개 문항이며 이성에 대한 생식기 구조 및 이차성징, 임신 및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5. 24개의 각 성적 특성에서 '털털하다', '꼼꼼하다', '강하다', '씩씩하다', '집념이 강하다', '씩씩하다', '상냥하다', '자신감 있다', '믿음직스럽다' 9개 특성에서 성별이 성교정 관념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민감하다'와 '깔끔하다'는 남성적 특성으로, 섬세하다'는 남녀 모두의 양성적 특성을 보였다.

6. 이성친구와 결혼 시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양쪽 다 1, 2위로 '다정한', '좋은 성품'을 선택하였으나, 3위로 이성친구에서는 훌륭한 외모를, 배우자에서는 건강을 우선시 하였다. 남녀별로는 남성에서는 순결을 여성보다 우선시 선택하였고 여성에서는 '부유한'에 관심을 보였다.

7. 남학생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항목별 순위차이를 검정할 결과 결혼 전에는 '훌륭한 외모', '유머감각' 등을 선호하였으나 결혼 시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건강', '동정심', '순결'을 우선시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12개의 조건 항목 중 10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로, 이성친구와 배우자의 선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8. 순결, 낙태, 미혼모 등에 관한 수업 후 조별 토론회(토론판)에서 다룬 문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 1) 순결(육체적·정신적)이란?
- 2) 순결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그렇다/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 3) 순결을 중요시하는 이유?
- 4) 순결 상실시 남녀 각각에게 생기는 문제는?
- 5) 낙태관련 비디오 감상 소감?
- 6) 고등학생인 우리 주변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 7) 결혼 후 원하던 아기가 임신이 되었는데 장애아(기형아, 정박아)라는 초음파 진단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참 고 문 현

1. 고진배. 고등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 김미경. 중등학교 성교육 현황 및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태도,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1997.
3. 김상근. 여고생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 고려 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4. 김옥란. 초등학교 6학년의 성교육 필요도와 성교육에 의한 성지식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5. 김용자.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6. 김윤숙.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7. 김의영.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8. 김양희, 민인철.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의 성 정형성의 영향 분석, 여성연구 1998 여름호, 한국 여성 개발원, 1998.
 9. 김홍규. 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조사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상담실활동사례집」, 대한가족계획협회, 1998.
 11. 대한가족계획협회 성문화연구소. 「에이즈 교육 지침서」,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12. 「청소년 성교육-신체적인 면」, 대한가족계획 협회, 1996.
 13.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성문화연구소.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대한가족 계획협회, 1997.
 14. 박성정.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5. 박순선.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성교육 실시전 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6. 박인덕.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제12집,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집, 1973.
 17. 방미라.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0; 3(1) : 48-58.
 18. 배윤성.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9. 법무부. 성비행 청소년을 위한 지도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995, 4-18.
 20. 사은령. 성교육 학습방법에 따른 성지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1.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편찬. 「성교육」, 현문사, 1996.
 22.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과행복」,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23. 심미옥. 여자고등학생들의 성역할 인식의 배경과 수용, 거부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24. 양주연.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5. 우윤미.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6.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통계연보, 1993.
 27. 이귀현. 성교육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8. 이근정. 청소년 성지식과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9. 이문화. 도시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0. 이병우. 현대 대중매체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1. 이성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2. 이정임. 초등교사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3. 이현숙.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4. 장미리. 중학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5. 조성자. 청소년들의 성윤리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의 청소년」. 1996; 11(5) : 20-25.
36. 최광수. 여자 중학생 학부모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7. 최순희.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8. 한유정.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9. 황은자.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문집 4집, 이화여대 한국 여성 연구소, 1987.
40. 홍강의. 한국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의 문제점, 「오늘의 청소년」. 1996; 11(5). 12-19.
41. Cecilia Dine Jacobs, Eve M. Wolf. School Sexuality Education and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Journal of School Health*. 1995 ; 65(3). 91-94.
42. Debra W. Haffner. Sexual Health for America's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6 ; 66(4). 151-152.
43. Douglas Kirby.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0 ; 50(12). 559-563.
44. Sexuality Education. A More Realistic View of its Effec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85 ; 55(10) : 421-424.
45.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Taking Behavior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2 ; 62(7).
46. Guy S. Parcel, Dave Luttmann. Evaluation in Sex Educ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 51(4) : 278-281.
47. Guy S. Parcel, Dave Luttmann, Michael P. Meyers. Formative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79 ; 49(6) : 335-339.
48. Hershel D. Thornburg. Adolescent Sources of Information on Sex,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 51(4) : 274-277.
49. Lorna Brown. Sex Education in the Eighties, Plenum Press, 1981.
50. M. Maxine Hammonds, Jerelyn B. Schultz. Sexuality Education Instructional Techniques: Teacher Usage and Student Preferenc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4 ; 54(7) : 235-238.
52. Sheila Gurnerman, Michele Jacknik, Ron Sipko. Sex Education in a Rural High School, *Journal of School Health*, 1980 ; 50(10) : 478-480.
53. Lisa L. L, Belinda M. R, etc. Support for School-based Sexuality Education among South Carolina Voter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8 ; 68(5) : 205-212.
54. Meichert, T & Burnett, K. F. Attitudes, Knowledge & Sexual Behavior of high-risk adolesc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exuality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1990 ; 68 : 293-298.
55. M. Maxine Hammonds, Jerelyn B. Schultz. Sexuality Education Instructional Techniques ; Teacher Usage and Student Preferenc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4 ; 54(7) : 235-238.